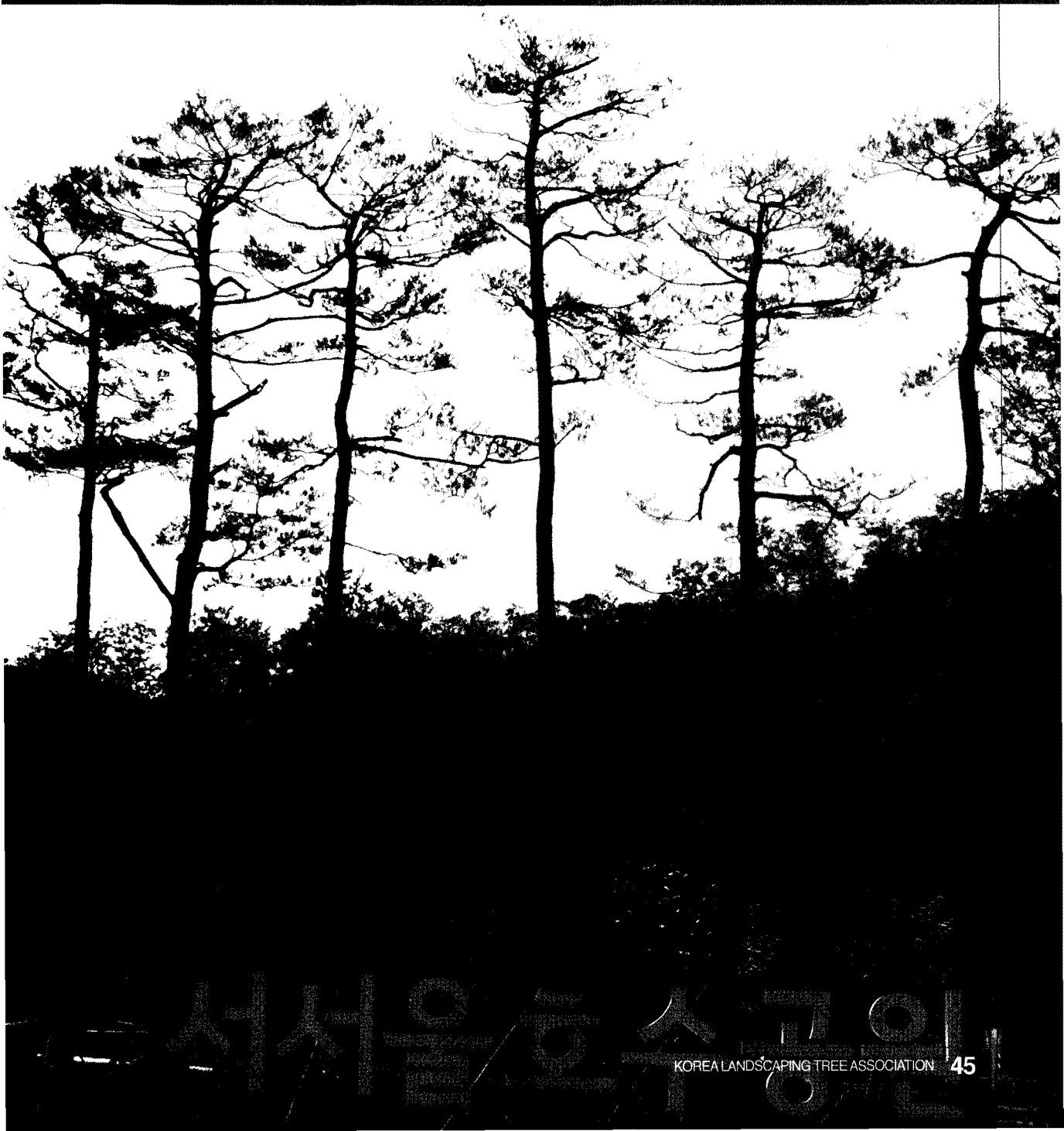


서서울호수공원

서울의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옛 신월정수장이 “물”과 “재생”을 테마로 한 공원조성사업을 통하여 2009년 10월 친환경공원인 서서울호수공원으로 개장되었다.

글 · 사진 | 강문성 부장 (kita@kita.or.kr)
한국조경수협회





서서울호수공원 조경공간

▶ 서서울호수공원

1959년 김포정수장으로 처음 문을 연 것을 1979년 서울시에서 인수하여 하루에 평균 12만톤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50년 만에 시민의 쉼터로 멋지게 새 단장을 하여 공원으로 개방하고 부천시와 경계를 이루는 능골산을 건강 한 숲으로 복원, 등산로를 정비하여 총 217,946㎡의 면적을 가진 서남권 최대 규모의 테마공원이라 한다.

서서울호수공원의 특징은 중앙호수에 설치된 비행기 소음을 활용한 소리분수, 기존 정수장의 침전조 구조물을 허물지 않고 재활용하면서 추상 미술 기법을 도입한 몬드리안 정원,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100인의 식탁, 넓은 오픈스페이스의 열린풀밭과 열린마당, 과거 정수장의 수



열린풀밭의 느티나무

목지대

산책로

도관 등을 재활용한 재생공원 등 다양한 테마공간이 조성되어 있고 체육시설인 축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철봉 등 12종(53개)가 있다. 주요 수목으로는 교목·소나무 등 47종 1,685주, 관목·눈주목 등 44종 13,816주, 초화류·스텔라원추리(지피식물) 등 98종 184,872본, 잔디(23,378㎡)가 식재되어 있다.

이 공원의 주출입구는 5개 정도이며 주차장 옆 2번출입구를 통해 들어가면 입구마당이 있고 주변에는 기존에 식재된 잣나무(H5.0×W2.0) 군락과 보행동선인 산책로 주변 가로수로는 왕벚나무(H4.0×B8~10)가 식재되어 있어 기존의 수목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 눈에 띈다.

서서울호수공원에 조성된 각 테마공간을 살펴보면

▶ 100인의 식탁

산책로 주변에서도 멀리 보이는 강렬한 빨간색의 100인의 식탁은 이름그대로 100명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긴 식탁이며 집에서 준비해 온 도시락 등을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식탁 주변에는 녹음수인 느티나무(H6.0~7.0×R30~40)가 10여주 식재되어 아직은 활착이 안 되었지만 향 후 그늘 등을 제공하여 휴식 공간으로서의 명소가 될 것 같아 보인다. 아래쪽에는 서서울호수공원이란 이름이 새겨진 안내간판 주변에 대형 소나무 장송(H10.0×R30~50) 10여주가 군식되어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으며 위쪽으로는 넓은 오픈스페이스의 경사면 녹지대인 열린풀밭이 있고 자연풍경식과 같이 대형 느티나무가 중앙에 독립수로 한주, 주변에 2~3주가 불규칙적으로 강조식재되어 확 트인 느낌과 함께 느티나무 아래 그늘 공간을 시민들이 휴식처로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 좋아 보였다. 주변 녹지대에는 모과나무 청단풍(H4.0×R15~20), 산딸나무(H4.0×R20) 등이 경관수로 3~4주씩 식재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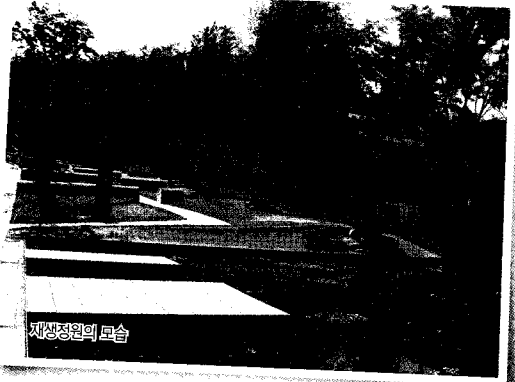
▶ 재생정원

재생정원은 정수장 시설로 직경 1m의 수도관 등 옛 신월정수장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징적 조형물을 놓은 정원으로 다양한 역사품들이 자라고 있고 연못에는 부레옥잠화, 붓꽃 등이 있었다.

우측의 공원경계부분에는 석축으로 쌓고 그 앞에 대나무(H3.0~4.0×R3~4)가 차폐용도로 식재되어 그 나름대로의 운치가 있었다.



100인의 식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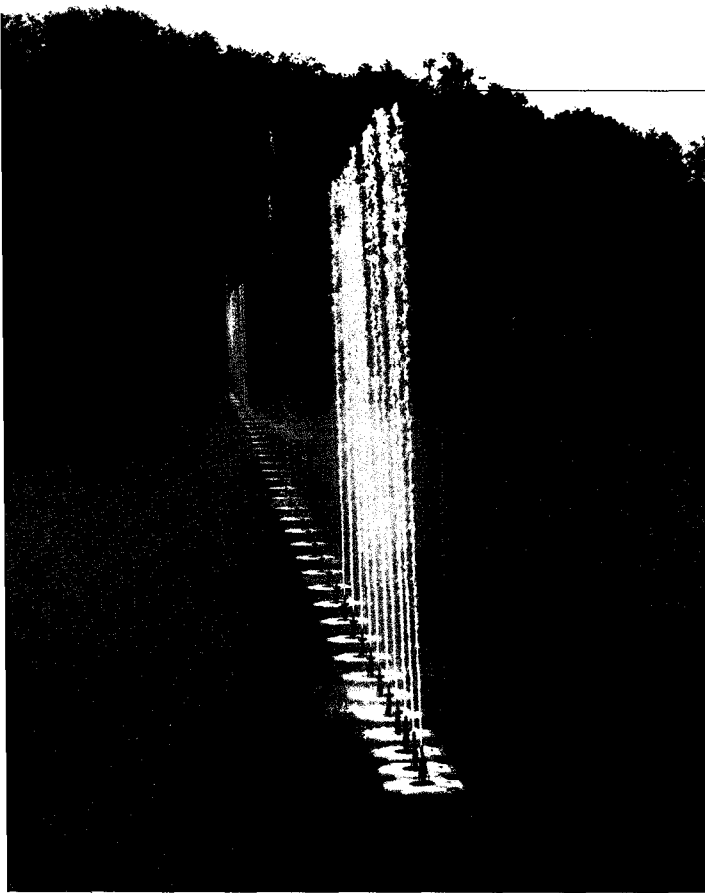
재생정원의 모습



재생정원 옆의 산책로



호수정경



소리분수

▶ 중앙호수

서서울호수공원의 중심축인 중앙호수는 서울시내에 서는 보기 힘든 규모인 1만8천㎡에 달하는 면적에 수생 식물을 식재하고 기존의 아카시아, 낙엽송, 수양버들 등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인위적인 형태의 공간이 아닌 친 자연적인 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또한 호수 주변에는 다간의 낙상홍(H2.5~3.0×W2.0×10지이상), 뿔꿩나무(H2.0~2.5×W1.5~2.0×7~8지이상), 히어리(H2.0~2.5×W1.5~2.0×7~8지이상)와 용처럼 뒤틀림이 있는 용버들(H3.5~4.0×R18~20) 등이 군식 또는 혼식되어 있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압권은 공원 인근으로 지나는 항공기 소음을 감지하여(81db이상) 자동으로 작동,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내는 41개의 소리분수를 설치해 시원한 느낌과 환경적 제약점을 테마화 하여 시끄러운 비행기 소리를 오히려 기다려지게 만든 발상이 돋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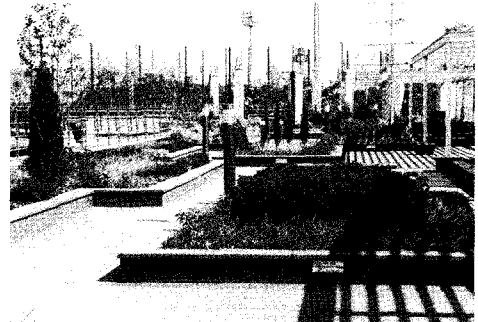
호수 중앙에 있는 방문자센터건물 옥상에는 옥상조경을 하여 목재데크를 이용한 동선과 박스를 만들어 둥근소나무, 측백나무 등 작은 수목과 홍조팝나무, 눈주목, 초화류 및 지피식물등이 다양하게 식재되었고 호수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었다. 건물주변에는 가로수로 이팝나무(H3.5~4.0×R10~12)가 식재되었고 소나무(H6.0×R20~30) 10여주, 산딸나무(H3.5×R12), 산수유(H2.5×R10), 왕벚나무(H4.0×B8)등과 하부식재로 관목인 홍조팝, 산철쭉, 회양목, 눈주목, 초본류 등이 식재되었다.



호수주변 산책로



문화대크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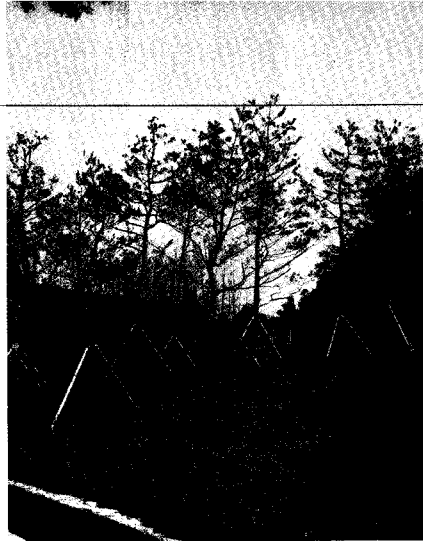


방문자센터건물 옥상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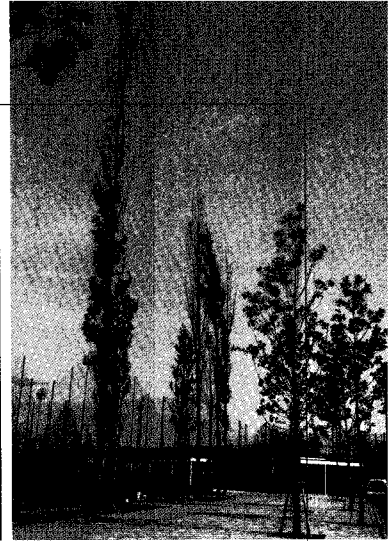


건물 옆 산책로에 식재된 대나무

방문자센터 앞에 조성된 문화데크광장은 기존 석축을 허물고 목재데크를 조성하여 호수의 시야확보는 물론 다양한 이벤트 행사에 활용한다. 데크사이에 기존의 미루나무(H10×R20)와 낙우송이 식재되어 있고 목백합(H6.0×R20~30)이 군식으로 식재되어 인위적인 공간에 자연상태의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소나무와 하부에 식재된 홍조팝



문화데크광장의 기존수목 활용

▶ 열린마당

열린마당은 입구에 배롱나무(H3.5×R8~10)7~8주가 군식으로 식재되었고 하부식재에는 눈주목이 식재되었다. 앞에는 실개천이 조성되어 붓꽃, 노루오줌, 사철패랭이, 노랑꽃창포, 박태기나무, 부들 등 초화류가 식재되었고 열린마당은 자연석을 쌓아 계단식으로 층을 만들어 넓은 푸른 광장이 펼쳐져 있었다. 층마다 형성된 녹지에는 초화류인 별개미취 등과 칠엽수(H4.0×R10~12)가 열식으로 석축을 따라 드문 드문 식재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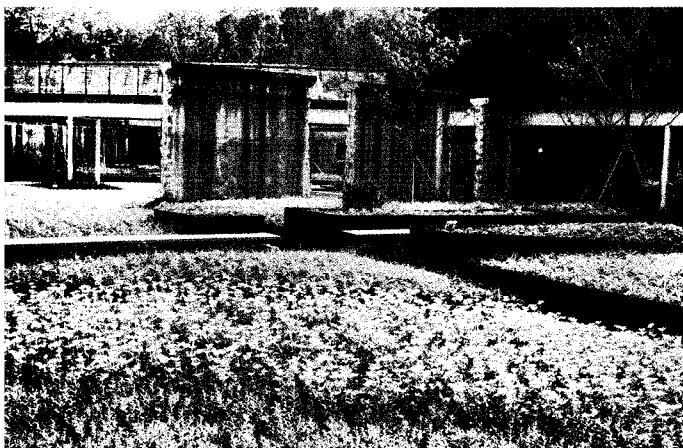
열린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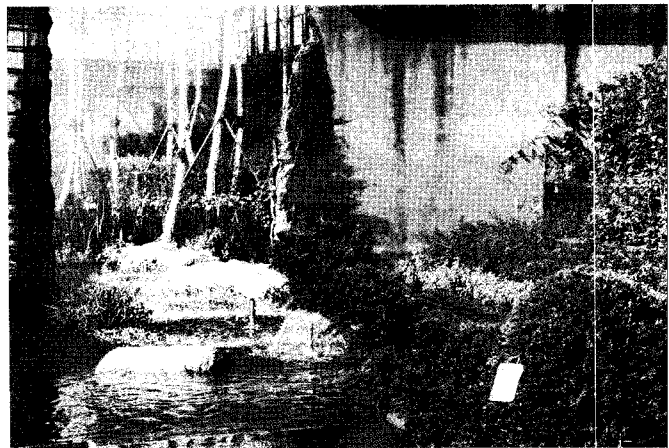
실개천

또한 일반 시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파고라는 자연 상태의 아카시아나무가 녹음수로 제공되고 그 주변에는 약수터와, 운동시설이 있고 생태숲탐방로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어 그야말로 열린마당이라 불릴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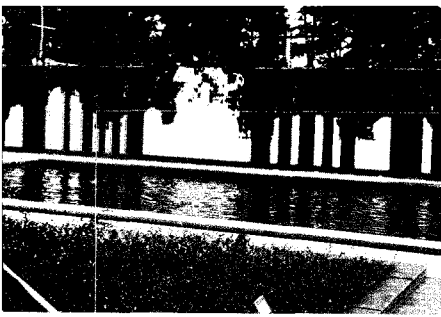
▶ 몬드리안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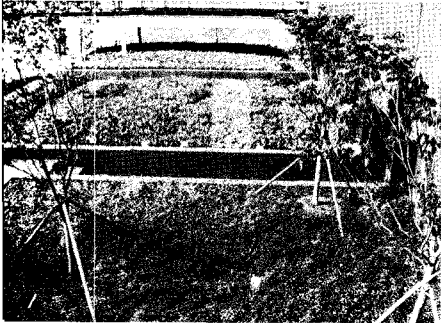
몬드리안정원내의 초화류



수생식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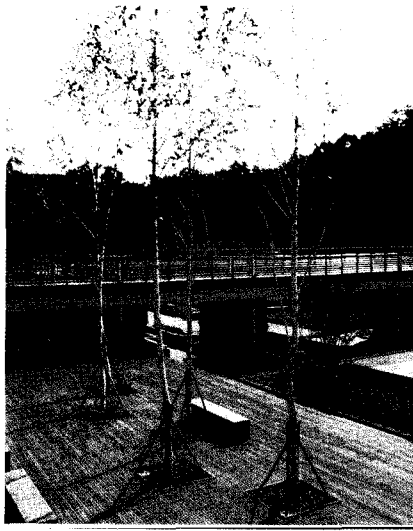
미디어 벽천



관찰로에서 내려다 본 몬드리안 정원



메타세콰이아의 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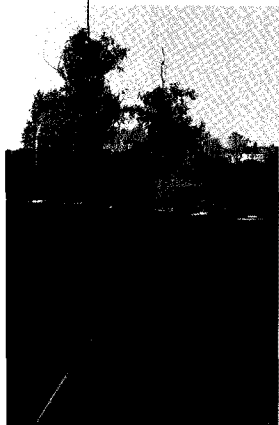
자작나무의 활용

몬드리안 정원은 추상화가 몬드리안의 구성기법을 도입한 수직, 수평의 선이 조화된 정원이다. 기존 정수장 침전조를 재활용한 미디어 벽천, 수생식물원, 하늘정원, 생태수로 등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기존 시설을 재활용한 수질정화 시스템과 빗물을 이용한 물순환시스템을 도입한 몬드리안 정원은 친환경시스템을 갖춘 아름다운 정원이다.

상부에는 목재데크를 이용한 이동 관찰로와 벤취등이 조성되어 있고 한눈에 침전조내의 정원과 중앙호수를 내려다 볼 수 있다.

몬드리안정원의 미디어벽천은 벽을 타고 물이 흐르는 수경시설에 기존 자연석이나 인조석의 벽을 대신하여 LED를 길게 연결시켜 다양한 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생식물원과, 생태수로 등에는 노랑꽃창포, 홍조팝, 옥잠벤추리, 큰 썩의 비름, 맥문동, 꽃범의 꼬리 등 초화류가 아기자기하게 심겨져 있었고 하늘정원 등에는 자작나무(H5.0×B8~10), 백송(H2.5~3.0×W1.5×R12~15), 층층나무(H5.0×R15), 산딸나무(H5.0×R12), 메타세콰이아(H10.0×B20~25), 계수나무(H7.0×R10~20) 등이 군식으로 식재되어 수직과 수평의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서서울호수공원은 주변의 자연환경 및 시설물등의 활용과 인위적인 공간의 적절한 조화를 통하여 요즘트렌드에 맞는 친환경, 저탄소, 재생, 수질정화 등의 키워드를 활용한 일반사람들이 접근성이 용이하고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감 있는 공원 및 친자연환경의 교육장이라는 생각이 든다. 수목의 활용 또한 기존 수목의 적절한 활용과 아울러 조화롭게 어울리는 수종 및 규격을 선정하고 용도에 알맞은 식재를 하여 독창적인 분위기를 연출한 점과 우리나라 고유수종 활용 및 다간형의 대형규격의 관목식재 등이 돋보인다. 🌳



용버들



핀오크(대왕참나무)



이팝나무



다간형의 낙상홍



기존수목을 활용한 호수 주변